

농어촌공사 옥천영동지사, 신규 청년농 대상 농지은행 사업설명회 개최

• 천정훈 기자



▲ 14일 한국농어촌공사 옥천영동지사가 2025년 신규청년창업형 후계농업인을 대상으로 농지은행 사업설명회를 개최하고있다.

청년창업형 후계농업인은 매년 각 지자체에서 선발해 농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영농 정착 지원을 받는 농업인으로 공사는 이들에게 농지 매매 및 임대를 지원하고 있다.

이번 사업설명회에서는 농업인의 수요, 경영규모, 영농경력을 고려한 농가 생애주기(관심→진입→성장→위기→은퇴)별 맞춤형 농지 지원에 대한 전반적인 설명했다.

이번에 선정된 청년창업형 후계농업인들은 진입단계에 해당해 농지매매 0.5ha, 임차농지 임대 3ha, 공공임대 3ha, 선임대후매도 0.5ha를 지원받을 수 있다.

이날 청년농업인들이 실질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농지매매 및 공공임대를 소개하는 부분에서는 질의를 통해 적극적인 관심을 보였다.

또한 농지은행 포털 가입부터 농지 신청, 기관 방문없이 간편하게 온라인 서류를 제출하는 공공마이데이터서비스, 비대면 전자계약 시연을 통해 농지은행 포털 사

용의 편리함을 몸소 체험하였다.

김상우 지사장은 "미래농업을 이끌어갈 청년농이 성공적으로 영농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공사는 청년농의 든든한 후원자 역할을 다하겠다."라고 말했다.

한편 농지은행 상담은 농지은행 포털(www.fbo.or.kr) 또는 농지은행상담센터(1577-7770)을 통해 사업별로 자세히 안내받을 수 있다.